2003년 국제유가 21-24달러 선!

산자부, 베네수엘라 파업사태 겹쳐 … 국내 영향은 미미할 듯

WTI, Dubai유 등 국제 유가가 잇따라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내수급과 2003년 유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와 정국혼미로 미주지역 가격결정의 기준유종인 WTI가 2002년 12월16일 연중최고치인 배럴당 30.86달러(2002.9.24)에 육박하는 배럴당 30.12달러를(02.12.16)을 기록했으며, 그 영향으로 아주지역 기준유종인 Dubai유도 12월17일 연중최고치(27.75$/b, 2002.10.2)에 접근한 배럴당 26.34달러까지 상승했다.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bbl)

구 분	2000	2001	2002 1Q	2Q	3Q	10월	11월	**12.12**	**12.13**	**12.16**	**12.17**
Dubai	26.18	22.82	20.15	24.39	25.57	26.32	23.31	**24.73**	**25.44**	**25.71**	**26.34**
Brent	28.89	24.79	21.56	25.42	26.94	27.56	24.25	**27.07**	**27.34**	**28.88**	**28.45**
WTI	30.31	25.89	21.56	26.27	28.34	28.88	26.29	**28.00**	**28.46**	**30.12**	**30.01**

북반구 지역이 동절기 석유 성수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이라크 간 전쟁가능성이 지속돼 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배럴당 2-3달러씩 더해져 있으며, 12월12일 비엔나에서 열린 OPEC 총회에서 쿼터량을 늘리면서 회원국의 쿼터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파업사태가 15일 이상 지속되면서 미국으로의 석유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원유가는 단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의 추이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 진행상황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OPEC과 비OPEC 산유국의 쿼터준수 여부 등 생산정책 ▷세계 경기회복 속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파업사태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이우러지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수급차질과 이로 인한 유가급등이 예상될 수도 있으나 베네수엘라 사태가 지속되는 한 미국 내 석유수급 및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사실상 이라크 공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기관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bbl)

구 분	전망시점	기준유종	2002	2003 1Q	2Q	3Q	4Q	평균	비 고
CGES	2002.11.	Brent(D)	25.0	28.3	26.9	24.4	23.1	25.7	단기전으로 종료시
		Dubai	24.22	24.50	23.30	22.90	20.90	22.90	
ESAI	2002.11.	Brent(D)	25.37	26.00	24.70	23.90	22.10	24.18	
		WTI	26.36	27.10	25.90	25.10	23.10	25.30	
EIA	2002.11.	WTI	26.11	27.23	26.42	25.71	25.47	26.20	

†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연구소(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SAI: 미국 에너지안보연구소(Energy Security Analysis, Inc)
EIA: 미국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요 해외 예측기관들은 미국-이라크 전쟁이 단기간 안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2003년 국제유가를 Dubai유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22-24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전쟁이 단기간 내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국제유가에 반영되어 있는 전쟁프리미엄이 제거돼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국제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국내에 거의 도입되고 있는 바, 2001년 국내 도입량의 0.17%, 2002년 0.0018%만이 도입되고 있어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베네수엘라 석유수출 차질이 WTI유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Dubai유 등 전 세계적인 가격상승으로 전이되고 있어 국내가격에는 2003년 1월 도입분부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내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라크 전쟁이 국내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부는 2003년 유가를 Dubai유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21-24달러로 보고 있는데 2000년 가격이 배럴당 26.18달러, 2001년 22.82달러, 2002년 23.7달러임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0.15%p 상승하고 무역수지는 7억5000만달러 악화되며 경제성장률은 0.1%p 둔화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원가비용도 0.3%p 상승하며 국내 평균유가는 0.7%p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또 산업연구원은 유가가 연평균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전 산업에 평균 +0.26% 내외의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고 채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정유, 유화, 시멘트, 플래스틱, 섬유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에는 원유 및 석유제품이 국내 소비량 기준(IEA 기준)으로 104일분이 비축돼 있으며 원유도입에 배럴당 5달러씩 가격보전시 34일분의 국내소비량을 완충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돼 있다.

산자부는 만일 미국-이라크 전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가 급등 및 수급상 문제가 발생하면, 비축유 방출과 유가 완충자금 집행 및 기타 필요한 수급조정 등 비상대책을 통해 경제운용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27>